로컬플러스

익산시 6월부터 6개소 분수 가동

익산시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소규모 공원 6개소의 분수를 가동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10월까지 중앙체육공원 등 지역 내 체육공원 4개소에 설치된 음악·바닥분수를 운영하기로 한데 이어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공원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원 분수를 가동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원 분수는 모현근린공원, 송정제공원, 황등 보삼말공원, 영등근린공원, 신동 등나무공원, 신동 산책로공원 등에서 운영된다.

분수는 정오(12시~오후1시)와 오후(6시~7시) 1일 2회 운영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소방서,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 소방공무원 극기훈련 실시

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익산웅포문화체육관에서 2016년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극기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군산소방서 직원, 의무소방원 등 230여명이 참여했다.

극기훈련은 산행 및 단합체육대회를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각종 재난현장 활동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산행 중 등산객들에게 산불예방 및 산행 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각종 산행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을 홍보하면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늘푸른도서관 장서점검

군산시 늘푸른도서관은 도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장서점검은 늘푸른도서관 소장도서 50,598권에 대해 실제 자료의 유무를 파악하고 서지 데이터와의 실물대조, 파손?훼손도서를 보수해 도서의 정확한 서가배열을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서 점검기간 동안 일반·아동?유아자료실의 도서 대출과 예약서비스가 일시중지 되고 도서의 반납은 무인반납기를 이용하거나 유아자료실(09:00~18:00)에 반납하면 된다.

단, 장난감 놀이방과 문화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원광대 글로벌교류센터 개관

기숙사 등 편의·복지시설 갖추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은 지난 25일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내 건립된 '익산글로벌교류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글로벌교류센터'는 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가 필요한 지역을 공모·선정하여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년 경북 경산에 1차로 건립되었고, 올해 전북 익산에 2차로 건립되었다.

익산글로벌교류센터는 전라북도 익산시 및 3개 대학(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북대)으로 구성된 '익산시 컨소시엄'과 정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원광대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부·전라북도·원광대·사학진흥재단이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립함으로써 기존 민자 기숙사비(월 평균 32만원)에 비해 저가의 기숙사비(월 19.9만원)를 실현하여 외국인 유학생 거주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 25일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내 건립된 "익산글로벌교류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기숙사 시설 외에도 유학생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정주지원센터, 국내?외 학생의 문화교류 장소인 글로벌 라운지,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 가능한 컨퍼런스홀 등 다양한 편의·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김영곤 국제협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공동체를 구현하여 유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한 유학생 기숙사를 건립함으로써 한국 유학의 매력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제 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옥외테라스 일부허용 등 10개 항목 집중 논의 통해 추가 개선 키로

군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201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혁위원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등 군산시 규제개혁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와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에 대한 검토, 규제지도 개선을 위한 논의,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과제 등이 이뤄졌다.

특히 옥외테라스 일부허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 규제지도 비친화적 지수 10개 항목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추가로 개선키로 의결했다.

또한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의 과적단속 기준완화 등 애로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이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4월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을 위한 보고회 개최를 통해 31개의 비친화적 항목 중 21개 항목을 개선키로 했다.

김양원 군산 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위해 신속한 지방규제 해소로 투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면서 "대민 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내일 군산 비응도에서 바다축제 개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는 '군산 바다축제'를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군산시 비응도(해양소년단 수련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제21회 바다의 날'을 맞이해 청소년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직접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을 비롯해 아름다운 등대와 117년의 역사를 간직한 군산항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 포토존, 해양 환경 체험 안전교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선박 모형 만들기, 해양레포츠 체험(모터보트, 카약), 승선체험(선박, 요트), 물고기 잡기, 바다환경 정화 행사 등 다채롭고 의미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해 바다의 소중함과 해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시민들이 이번 바다축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바다와 친숙해지고 바다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내일 군산 수송체육공원 '아나바다 장터' 개최

'나눔·희망 애정촌 만들기' 주제로

군산시 수송동주민센터는 오는 28일 수송체육공원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펼친다.

'나눔과 희망의 애정촌 만들기'를 주제 펼쳐지는 이번 장터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10개 단체를 비롯해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나바다 장터는 시민들에게 집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고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품목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물품이나 새제품으로 도서, 학용품, 가방, 의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이다.

또한 클레이 전화번호 안내판, 캐릭터 우드, 팝콘, 환경부채 등 만들기 이벤트와 함께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와 재난안전 대처법 체험 등 아동안전에 관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펼쳐진다.

장터운영 판매금의 20%이상은 현장에 마련된 모금함에 자율기부를 통해 전라북도 사회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악취해결시민대책위 민관 간담회 개최

익산시는 26일 신재생자원센터 2층 홍보실에서 익산시 악취해결시민대책위 20여명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저감 거버넌스 추진계획'을 세우고, 악취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악취저감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2016년 악취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과 악취저감 방향을 제시했다.

또 악취감시센터 설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옥용호 환경녹지국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대책을 고민함에 있어 시민과 행정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드림스타트, 위기아동 희망울타리 치료사업 운영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희망울타리 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군산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에서 위기아동을 발굴·추천하면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는 위기아동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과 건강이상 아동의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하게 된다.

진단 후 신체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아동은 정길양이비인후과의원, 군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으뜸정형외과, 준피부과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되며, 정신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아동은 밝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이상발달 및 장애를 가진 아동은 '꿈꾸는 희망날개! 진단 및 치료지원'으로 바우처 제도와 치료프로그램을 연계한다.

특히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아동은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등 아동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에 따른 전문의료기관의 치료는 물론 아동의 상태,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언어·인지 치료, 놀이·예술치료, 게임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제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게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